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41호 2004. 7.1 (목)

順天金氏宗報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김종식/편집인:김봉환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 / 전화:(02)400-2501~2502/FAX:(02)400-2505

순천 김문(順天金門)의 혼(魂)이 살아 숨쉬는 영롱한 대동보(大同譜)



만물(萬物)이 생동하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순천 김문(順天金門) 가정에 조상(祖上)의 음덕(陰德)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자손손(子子孫孫) 도도히 내려오는 송조돈목(崇祖敦睦) 사상(思想)의 바탕 위에 종

사를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희생 봉사하는 종친(宗親)들의 거룩한 성원(聲援)에 힘입어 7년여의 긴 산고(産苦) 끝에 영롱한 대동보(大同譜)를 순산(順産)하여 전국 각 종친(宗親)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년은 순천 김문(順天金門)의 모든 종친(宗親)들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중앙 종친회(中央宗親會)의 넓은 가슴에 포용하고자 한 피눈물나는 각고(刻苦)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 종친(宗親) 몇 분은 아직까지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여 대동보(大同譜) 편찬에 끝까지 반대하며 막무가내의 행동을 하고 있어 뜻있는 종친(宗親)들로 부터 지탄(指彈)이 자자하니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고 우리의 혼백(魂魄)이 살아 숨쉬는 대동보(大同譜)를 수백명의 종친(宗親)들이 운집(雲集)한 가운데 동원제(同源齊)에서 고유제(告由祭)를 경건히 올리던 날, 그 날이 순천김문(順天金門)이 명문화별(明門華閥)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었으며 가슴벅찬 감격으로 후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름 느끼는 길이 남

길 자랑스럽고 보람된 날이었습니다. 역경에 역경을 넘고 넘어 불철주야(不撤晝夜) 동분서주(東奔西走)하셨던 지역 종친회(宗親會) 각 파종회(派宗會) 임직원과 편찬위원들에게 순김(順金)의 이름으로 노고(勞苦)를 치하(致賀)하고자 합니다. 명문화별(明門華閥)의 순천 김문(順天金門)이 명실공(名實共)히 대동보(大同譜)를 발간함으로써 대한민국 후세 사가들에게 귀중한 사료(史料)가 되는 지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종친(宗親) 여러분! 중앙 종친회(中央宗親會)는 열화(熱火)와 같은 종친(宗親)들의 뜻에 의하여 중앙 종친회(中央宗親會) 회관(會館) 건립(建立)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를 구성하고 회관(會館) 건립(建立)에 총력(總力)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 한가운데 우리의 상징인 회관(會館)이 우뚝 솟아오를 그 날까지 물심양면(物心兩面)의 뜨거운 헌성(獻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 종친회(中央宗親會)의 문(門)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개인의 아집(我執)과 독선(獨善)을 버리고 스스로 참여하여 후손을 위하여 문중(門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갈고 닦아온 역량을 백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6월 3일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제19회 대학생(大學生) 교양(教養) 강좌(講座) 안내

순천김씨(順天金氏) 중앙 종친회(中央宗親會)에서는 2세 교육(教育) 사업(事業)의 일환(一環)으로 지난 1986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 강좌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종친들께서는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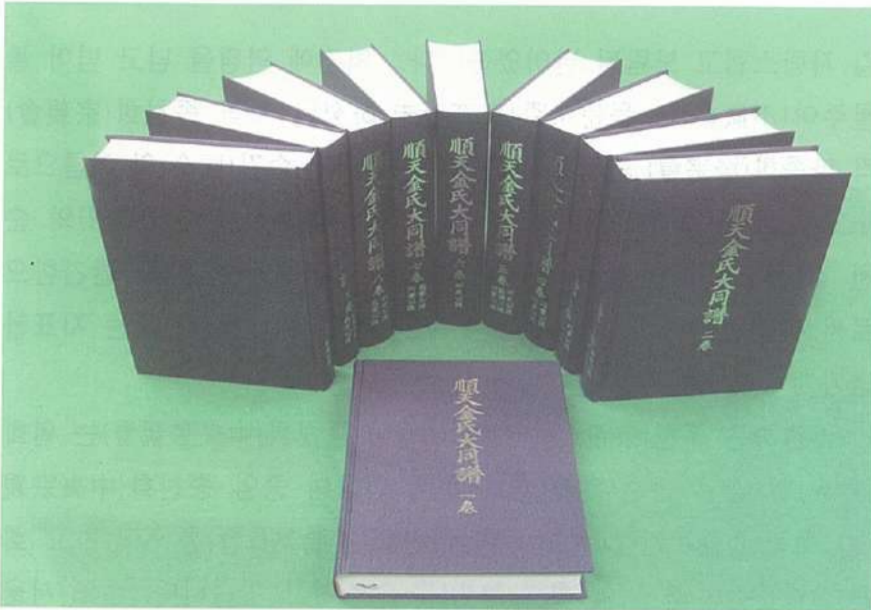
- ▶ 개 강 일 : 2004년 8월 5일 ~ 8일 (3박 4일간)
- ▶ 장 소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방축동(동원제)
- ▶ 강 사 진 : 종친중에 덕망이 높은 교수, 법관, 학자 등 위촉
- ▶ 신 청 자 격 : 순천김씨 남녀 대학생 및 동등학력 소지자
- ▶ 입 소 자 결 정 : 7월 30일까지 접수, 개별 통지함
- ▶ 인 원 : 30명
- ▶ 수 강 료 : 무료 (소요 경비 일체는 중앙 종친회에서 부담)
- ▶ 기 타 : 수료증 수여, 기념 사진은 개별 우송함.

☎ 문의 전화 : 02-400-2501~2 FAX : 02-400-2505

순천김씨 대동보(大同譜) 역사적(歷史的) 출간!

• 전 10권, 7년여 산고(産苦) 끝에 완간(完刊) •

순천김씨 전체 문중 12개 자파를 모두 수록한 명실상부한 대동보가 산고 7년 여만에 역사적으로 편찬·간행됐다. 순천김문의 역사 이래 최초로 발간된 대동보는 지난 1997년 편찬이 의결된 이래 3년여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000년 4월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각처의 후손들을 대상으로 홍보·수단 작업에 들어가 4년여만인 지난 3월 제작을 완료하기에 이르렀다.



• 대동보 총 10권 •

이번 대동보 제작에는 편찬위원장 종식 중앙종친회장을 비롯해 편찬위원, 수단위원, 편집위원, 교정위원 등 90여명의 종친들이 참여해 실무를 감당했으며 역사적인 대동보 편찬을 위해 4년여 동안 일부 종친들의 물이해와 반대를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번 대동보는 특히 열람의 편의를 위해 국(國)·한문(漢文)을 혼용해 제작했다. 황서 형식(가로읽기)에다 이번 대동보의 커다란 역사적 업적은 그동안 문헌(文獻) 빈곤으로 상계대를 정립하지 못한 채 편찬돼 왔던 종래의 족보와 달리 여러 지파의 후손들이 소장한 가승(家丞)들을 모아 상계대 정립에 필요한 소중한 자료들을 발굴해 시조(始祖) 이하 40여세(世)에 이르는 전계대(全系代)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완벽한 순천김문(順天金門)의 역사를 정립(定立)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대동보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완전한 세대(世代)를 정립(定立)해 놓아 자신의 세대(世代)만 알고 있으면 종친간의 위계 분별이 쉽도록 해 종래 복잡한 행렬자(行列字)를 통해 위계를 따지던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을 해소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한편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대동보 출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동보 편집실장 명재(明在)종친은 "역사적인 완전한 족보인 대동보 발간을 계기로 모든 종친들이 이 대동보를 소장하고 조상의 역사를 탐독하며, 송조사상(崇祖思想)을 드높여 자랑스러운 순천김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 주기를 당부 드린다" 며 역사적 대동보 편찬의 대단원을 마무리 하게 돼 참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감회를 털어 놓았다.

시조 평양군(平陽君) 춘향대제(春享大祭) 봉행(奉行)

• 4월 24일 同源齊, 전국 400여 종친 참례(參禮) •

시조 평양군 춘향대제(春享大祭)가 지난 4월 24일(음 3월 6일) 전남 순천 동원제(同源齊)에서 종친 400여명이 참례한 가운데 봉행(奉行)됐다. 이날 춘향대제(春享大齊)는 초헌관 동택(東澤), 아헌관 기운(起云), 종헌관에 행열(行燁), 축관에 동걸(東杰) 그리고 도연(道淵) 종친의 집례(執禮)로 봉행됐으며, 참례한 400여 남녀 종친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가문의 자랑과 긍지 그리고 송조(崇祖)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 춘향대제는 시조 평양군(平陽君)만을 모시던 종래의 제례와 달리 시조 비위와 함께 양위(兩位)의 신주를 봉안하고 제(祭)를 올렸다.

한편 이날 대제에 모신 시조(始祖) 영정은 안관사(安官祠)에 봉안됐던 것으로 지난 1914년(갑인년)에 동원제(同源齊)로 옮겨 모신 것으로 지난 1988년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날 대제 봉행에 앞서 묘소에서는 실전(失傳)됐던 시조부터 22세에 이르기까지의 상계대를 수록한 새로운 묘비를 목재

공(默齊公), 절제공(節齊公) 등 양파에서 정성어린 헌성으로 제작 제막식을 가졌다.

대동보(大同譜) 중간 고유제(告由祭)도 올려

이날 중앙종친회는 춘향대제에 이어 대동보(大同譜) 중간 고유제를 올렸다. 이날 고유제는 중앙종친회 종식(鍾植)회장이 초헌관을, 상임고문 영희(榮熙)종친이 축관으로 집례했으며, 한화그룹 회장 승연(升淵)종친은 화환을 보내 대동보 출간을 축하했다. 중앙종친회는 이날 고유제에서 족보 편찬에 공(功)이 많은, 金成福, 金祐永, 金東柱, 金亨在, 金昌淵, 金相默, 金東泳, 金文元, 金동성, 金德昭, 金榮培, 李尙俊, 金學元, 金明在, 金龍熙, 金東石 16명의 종친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하고 노고를 치하·격려했다.



• 영당제를 모시는 제관들
• 4월 24일, 동원제(同源齊) •



•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400여 종친들
• 4월 24일, 동원제 뜰 •

3면으로 계속

2면에서 계속

회관(會館) 건립 추진위원회구성을 결의

중앙종친회는 이날 춘향대제와 대동보 발간 고유제를 마친 후 동원제 뜰에서 400여 종친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모임을 갖고 판서공파 지섭(志燮)종친이 발의한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건을 참석 종친 전원의 박수 동의로 결의하고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중앙종친회 종식(鍾植)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구성은 종식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춘향대제에 참여한 종친들에게는 한화그룹 회장 승연(升淵) 종친이 500명분의 기념품을 선물했으며 수연(秀淵) 종친이 발행하는 여행잡지 "여행스케치" 한권씩이 주어졌다.

문중 중진(門中重鎭) · 지역 회장단 연석 회의 개최

· 5월 12일, 중앙종친회 회의실 ·

중앙종친회는 지난 5월 12일 회의실에서 중진(重鎭) · 지역 회장단 연석 회의를 열고 대동보 간행과 중흥조(中興祖) 사적(史蹟) 수호 관리 사업 그리고 지난 4월 24일 동원제에서 발의된 회관 건립 건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가 지난 4월 24일 위원으로 선출된 종식 회장에 위임됨에 따라 종식 회장이 작성한 사업 추진 안(案)을 협의한 끝에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사업추진위원회는 명칭을 "순천김씨 중앙종친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로 하고 약간명의 고문과 위원장 1인, 20인 내외의 고문과 위원장을 비롯해 총무 2인, 재무 2인, 조직 2인, 사업 2인, 섭외 2인, 홍보 2인, 감사 2인 등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순천김씨 중앙종친 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고문(顧問)에 영희(榮熙), 규남(圭南), 병일(炳鎰), 창연(昌淵), 재준(載俊), 동택(東澤), 동길(東杰), 인배(仁培), 찬수(贊洙), 봉빈(奉斌), 승연(升淵), 준집(椿集), 동영(東英), 동주(東柱), 재원(采源), 명규(明奎), 명재(明在), 명환(銘桓), 상묵(相默)

위원장(委員長)에 종식(鍾植)

부위원장(副委員長)에 상홍(相洪), 학원(學元), 철준(喆俊), 복재(復在), 정웅(正雄), 동오(東吾), 동균(東均), 보연(輔淵), 상계, 하연(夏淵), 도연(道淵), 상용(相容), 두원(杜元), 정일(政壹), 지섭(志燮), 행엽(行燁), 삼근(三根), 철우(哲宇), 병석(炳錫), 춘희(春熙), 병윤(炳潤), 상윤(相允), 상대(相大), 창원(昌源) 등 25명, 총무(總務)에 봉환(鳳煥), 한종(漢鐘), 재무(財務)에 상윤(相允), 동석(東哲), 조직(組織)에 동훈(東勳), 우영(祐永), 사업(事業)에 영일(泳日), 광홍(光弘), 섭외(涉外)에 상묵(相默), 영희(榮熙), 홍보(弘報)에 수연(秀淵), 승연(承淵), 감사(監事)에 경남(景南), 정태(正泰) 종친 등으로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대동보의 반질(頒帙)이 마무리 되는 시점 후로 미뤘다.

안동(安東) 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 4월 16일 안동 구담 국담정사(菊潭精舍) ·

안동종친회(安東宗親會)는 지난 4월 16일,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 국담정사(菊潭精舍)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관내 200여명의 종친들이 참석했으며 중앙종친회 종식회장, 상용부회장, 영남종친회 동군회장과 임원, 그리고 수연 종친 등이 함께 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입회장에 철우(哲宇) 종친을 비롯해 명예 회장에 수연(秀淵) 종친, 부회장에 동(東), 윤환(潤煥), 오현(五鉉), 병덕(秉德) 종친 등 4명이 그리고 총무에 동석(東石), 종백(鍾百) 종친, 감사에 전임 회장이인 복재(復在), 석산(錫山) 종친이 각각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국담정사(菊潭精舍) 수리 문제가 발의돼 신입 철우 회장 책임 하에 올해 안에 수리를 끝내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수리하게 될 국담정사는 그동안 보수와 관리를 소홀히 해 가문 행사를 원만히 치룰 수 없어 본채와 마당, 담장 등을 중심으로 보수하기로 했다.

국담정사(菊潭精舍)는 중시조(中始祖)이신 양경공(襄景公)의 장자(長子) 휘(諱) 유온(有溫) 국담공(菊潭公)을 비롯해 공(公)의 장인 권감사(執經)에 이르는 13위(位)의 묘제(墓祭)를 주관하는 제사(齊舍)로, 대략 3백여년 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담정사(菊潭精舍)가 있는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동은 순천김문의 대다수를 접하고 있는 양경공(襄景公) 후손(後孫)의 70%가 이곳 출신이라 할 만큼, 중흥(中興)의 터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으로 아직도 100여호가 넘는 종친(宗親)들이 전국 제일의 집성촌(集成村)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구담 국담정사(菊潭精舍) 보수를 위해 안동종친회(安東宗親會)는 철우 회장

과 봉환, 동성 종친이 중심이 돼 3천여 만원이 소요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동 출신 종친들이 모금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 종친회에서 도 지원을 약속해 국담정사가 올해 안에 제모습을 찾을 전망이다.



· 국담정사(菊潭精舍) 전경 ·
· 안동시 구담동 ·

제 24회 부산(釜山) 종친회 정기 총회

· 4월 15일 새로운 임원진 선출 ·

부산종친회(회장 김상계)는 지난 4월 15일 제 24회 정기총회를 민락동 강변 힐집(철제공파 길수 종친의 집)에서 성대히 거행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계 종친이 부산종친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18명의 종친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문에 병기, 완정, 인섭, 보연
회장에 상계

수석부회장에 낙희(樂熙),
부회장에 병모(丙模), 성복(成福), 성국
총무에 유동(流童)
감사에 동옥(東玉), 성국(成國)
간사에 완희, 광재
이사에 갑점, 상도, 해수, 길수, 동기, 형선



부산종친회장으로
선출된 상계 종친

『順天金氏 譜學 研究』金喆熙 종친의 간행사에 대해 말한다!

喆熙 종친의 글 머리 말은 간행사인데 본문에는 간행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도 없는 것은 기만술로서 선량한 종친들을 우롱한 글이다. 이를 두고 朝三暮四라고 辭典에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글 말미에 반론을 기대한다기에 어차피 붓을 들었다.

귀종은 명색이 양경공파 파종회장에 되고 나서 오로지 양경공 사적관리수호에만 전념하겠노라고 공언을 했다. 그 후 1년 4개월만인 지난 5월 초순에 날아든 간행사 아닌 간행사 인사말에 양경공파 파종회장은 종사에 관련하여 일단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公人의 입장에서 우리 문중의 그릇된 종사의 진행을 그냥 좌시하거나 외면만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 중대한 상황이 무엇이길래 단호히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披瀝했던 말인가 파종회장의 권위가 그렇게 쎄가 1년 4개월전부터 귀종 종회장이 되기 수 십년 전부터 흐물흐물 써어 자빠지게 된 양경공재실 복원사업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공약까지 내동댕이 칠 만큼 중대사인가 이번 파종회장 권위 방방이를 휘두르고 나선 제일성으로 중앙종친회에서는 종친들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족보를 일방적으로 간행하여 배포한다고 하니 우리 김문의 앞날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금방 귀종의 거짓말로 판명된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귀종은 본래의 족보 간행 과정을 시작부터 거부했기에 알지도 못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니 일방적으로 간행 배포한다는니 간행된 족보 반질을 안 받거나 못 받거나 귀종이 필요 없는 족보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면서도 아무 상관 관계도 없이 모해한 말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 인격상에 많은 손상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귀종은 일체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2004년 3월 드디어 족보다운 대동보 全 10권(1질) 3,000질을 간행 마감했다.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편찬위원회 결의 사항이면서도 전국 종친들의 인준 후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은 자발적인 수단 종친 2,700세대의 1세대당 족보 1질 대금 20만원씩을 받고, 완전 반질까지 마친 이 마당에 귀종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큰 실언으로 알고 앞으로 삼가해 주기 바란다. 보라! 귀종 1파는 족보 간행 시초부터 문헌 무장 기몽세계라는 황당한 말을 내걸고 갖은 수단방법으로 반대하였지만 현대 현명한 종친들은 귀종의 말을 역시 거짓말로 알고 하루 아침에 2,700여 세대가 자진하여 수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족보간행과 반질까지 끝난 오늘날 족보무용론을 아무리 외친다해도

2,700여명의 종친들이 수령한 족보를 무효화하여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말한다는 것은 메아리 없는 절규의 끝일 뿐이다. 귀종이 이렇게 지나친 말로 나오게 된 동기는 십 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갑자보에 애똥한 동경에서 우려난 감정으로 승화시킨 오랜 세월의 나이테를 한 꺾질씩 더 깊은 곳까지 들여다 본 내면에는 지금 막 간행이 끝난 족보 무용론의 도가니속으로 몰고 가는데 바탕을 깔고 종친이나 적이나 이분법적 사고 방식으로 꾸민 흔적이 적나라하게 이번 글에 드러난 것이다.

귀종은 늘 분열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면서 2003년 음력 1월 15일 월담사 亨祀를 계기로 5~60명의 선량한 종친들을 총돌질하여 이른 바 양경공파 파종회라는 미명하에 파종회장이 되어 하루 아침에 종친을 분열시킨 장본인이 이제와서 순천김씨 양극화 조직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간계야 말로 천인이 공로 할 일이다. 이러나 저러나 그 파종회장 자리가 썩 마음에 들거든 元堂里 경덕제의 제실과 황폐화된 월담사 복원이라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는 남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지성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함을 덕목으로 삼아야만 파종회장으로서의 보람이 될 것이다.

귀종의 태도가 달라지기 전에는 명쾌한 해답이 안 나온다. 1999년 남미의 사례를 주제로 한 하버드 대학에서 가난이 닦쳐온다는 대규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을 때 나온 이야기 가운데 일이 어긋났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걸 어떻게 고쳐야지 하는 순서를 생각하는 사회는 발전한다. 반대로 누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으며 누구의 음모라고 하는 사회는 퇴보한다" 라고 한 이 깔끔한 말은 귀종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생각한다. 지평공파는 불과 200호 밖에 안되는 소수파라고 알보는 언행에 대하여 지평공파 종회장 학원 종친은 본래 700여 세대 지평공파 종의 절반인 350세대가 금번 족보 수단에 참여했다고 힘주어 반박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귀종은 이번 족보는 敦宗族이 아닌 불신이며 明譜系는 더욱 아니라고 폄하했다. 이렇게 현란한 말투로 거짓에 속고 농간에 찌든 온 종친들은 아무리 험뜯고 감언이설로 달랠지라도 점점 멀어져 간다. 귀종이 아무리 꼼짝도 않는 종친상은 그렇게도 모르고...

2004년 6월 1일

순천김씨 중앙 종친회

고문 김명환

알 림

종친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상의 음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간 대동보를 반질(頒帙)중이오니 양지하시고 본보 대금(200,000원)의 예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조속히 완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불하신 대부분의 종친들은 이미 본보를 수령하였습니다. 기히 족보 대금을 납입하신 종친은 입금여부 확인 전화를 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00-2501~2 편찬실

※ 중앙 종친회 임원을 사칭하여 지역종친회를 방문하여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사 행위가 잇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6

순천김씨 중앙 종친회

인 사



· 幹事長 鳳煥 종친 ·

전임 학원 간사장이 사임하고 봉환(양경공 20대손) 종친이 간사장에 6월 1일자로 취임했다.

결 혼

지난 5월 16일 대구광역시 아미고 호텔 아미고 홀에서 김동균(중앙종친회부회장 겸 영남종친회 회장)김영순의 장남 성환군의 결혼식이 종친을 비롯한 많은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우리 족보(族譜) 보기

族譜編纂室

우리의 이번 족보(族譜)는 종래의 족보와 달리 횡서(橫書)에 국(國) 한문(漢文)을 혼용해서 수록되었으며 모선록(慕先錄), 손록(孫錄), 참고록(參考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선록(慕先錄)에는 현조(顯祖)의 영정(影幀)과 선대유적(先代遺蹟) 그리고 세덕록(世德錄)등을 실어 조상을 숭모(崇慕)하게 하고 손록에는 시조(始祖) 이하 40여세의 인적사항과 특기사항이 실려 있으며 참고록에는 지난 수보(修譜)시의 서문 발문과 증빙자료 및 족보 보기의 참고 자료들이 실려있다. 1권 13페이지의 목차(目次)를 보면 전체의 구성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선대유적과 세덕록은 각각 목차(目次)가 있어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으나 손록(孫錄)은 양식이 횡서로 바뀌어서 좀 거북할 것 같아 몇가지 안내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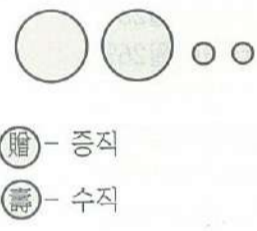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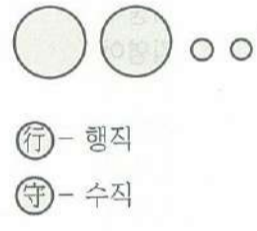


시조(始祖) 이하 25세까지는 전 계파(系派)를 통합하여 1권 말미에 실렸고 26세 이하는 계파 단위로 2권 이하에 실려 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하는지와 몇 세(世)가 되는 지를 알아야 한다. 소속 파는 1권 777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고 세는 다음표의 항렬자(行列字)가

40세이니 자기의 위치가 어디임을 알아서 몇 세임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소속 파를 알면 자기 파가 몇 권에 실려 있음을 알게 되고 세를 알면 자기 파가 실려 있는 책의 자기 세가 해당되는 것에서 찾아 보면 될 것이다.

◎ 40世 行列字

派	목재공파	절재공파	진서공파	관사공파	익찬공파	남포공파
行列字	亨	亨·烈	淵	淵	淵·永·貞	炫·鎬
派	어사공파	판서공파	감찰공파	군수공파	황성공파	상의원공파
行列字	鎭·鎔	淵·貞·洙	淵·浩·洙	基·聲·培	永·淵·洙	淵

다음에 손록난(孫錄欄) 보는 법을 다음 예시 양식에 의해 알아보기로 한다.

36世	37世	38世	39世	40世	下系
宇宙-天地의 父 ② 156 -天地의 윗대 2권 156페이지 天地 천지 (字) - 관명(冠名) (號) - 아호(雅號) (贈) (壽) (行) (守) - 1권 754페이지 참조	 贈 - 증직 壽 - 수직 配安東金氏... (배-夫人)	 行 - 행직 守 - 수직 墓 ... 子座 합편 (묘 ... 자좌 합편(합장)) 좌향 - 1권 725페이지 참조	 통정대부(通政大夫) <벼슬의 품계>	日月 일월 사헌부감찰(監察) <벼슬 명> 日月의 子(3권 120頁) 1권 755~760페이지 참조	 △ △ ③ 120

위 표는 天地를 36世로 하고 日月을 40世로 가정하고 예시 한 것으로 天地 위의 宇宙는 天地의 父이고 下系의 △△는 日月의 子를 가리키며 天地 옆의 ② 156(2권 156페이지)은 天地의 윗대가 실린 곳을 가리키며 △△ 밑의 ③ 120(3권 120페이지)은 日月의 아랫 대를 가리키는 것이니 각각 그 곳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수행수 贈壽行守 는 증직, 수직, 행직, 수직 등으로 조선조(朝鮮朝)의 벼슬에 관한 것으로 1권 754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때의 벼슬 상황은 1권의 755~760페이지에서 찾아 보면 잘 알게 될 것이다.

이에 첨연코자 함이 있으니 손록의 자신에 관한 사항만 볼 것이 아니라 틈틈이 선대 유적과 세덕록도 살펴서 조상의 삶의 사적을 읽으면 우리 順天金門이 과연 별열(閥閥)이요 명문(名門)임을 확인하게 되어 자긍심(自矜心)도 높이게 하고 배우는 바가 많을 것이다.

선인(先人)들께서는 족보를 가보(家寶)로 여기고 소중히 하였으며 조상이 족보 안에 계신 양 족보를 들이는 것을 모신다고 존대하였고 족보를 볼(讀) 때는 먼저 손을 씻고 바른 자세로 공경히 보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조상을 존중(尊崇)하는 자세였나 선인들은 그와 같이 조상을 공경히 여겼음을 우리의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에 미치지 못 할 지라도 그러한 자세로 족보를 대해야 할 것이다.

廣告

順天 金氏 大同譜 頒帙을 祝賀드립니다.

國內 最大 김치 專門메이커
(株) 양지은食品

代表理事 金 建 鎬

전화 : (02) 430-0231~8

FAX : (031) 797-1 5 9 7

www.yangjieun.com

양지은식품



순천김씨 종친회 홈페이지

<http://www.schkim.co.kr>

김창주	*납4년03월10일	경기 평택	김종훈	*납4년03월29일	대구 달서
김필수	*납4년03월10일	인천 강화	김갑연	*납4년03월30일	전북 진안
김광연	*납4년03월11일	충북 영동	김덕소	*납4년03월30일	경북 안동
김길연	*납4년03월11일	전남 구례	김동호	*납4년03월30일	전북 임실
김동석	*납4년03월11일	경북 성주	김동훈	*납4년03월30일	경기 성남
김동수	*납4년03월11일	경북 구미	김 연	*납4년03월30일	경기 파주
김병욱	*납4년03월11일	서울 마포	김경원	*납4년03월31일	서울 도봉
김병희	*납4년03월11일	충남 논산	김숙남	*납4년03월31일	대구 수성
김윤일	*납4년03월11일	인천 남동	김완석	*납4년03월31일	광주 광산
김동국	*납4년03월12일	서울 은평	김형팔	*납4년03월31일	광주 북구
김두연	*납4년03월12일	경북 상주	김동영	*납4년04월01일	대구 달서
김수연	*납4년03월12일	경남 하동	김용훈	*납4년04월01일	서울 은평
김영근	*납4년03월12일	서울 양천	김정현	*납4년04월01일	서울 강동
김영철	*납4년03월12일	충북 괴산	김광수	*납4년04월02일	경기 가평
김철희	*납4년03월12일	서울 용산	김종욱	*납4년04월02일	경북 안동
김병환	*납4년03월15일	경북 안동	김성욱	*납4년04월07일	경기 안양
김희은	*납4년03월15일	대전 중구	김천섭	*납4년04월07일	부산 연제
김상열	*납4년03월16일	울산 남구	김준원	*납4년04월08일	광주 북구
김춘희	*납4년03월16일	경남 사천	김동한	*납4년04월09일	서울 동작
김형호	*납4년03월16일	경기 안산	김영희	*납4년04월12일	서울 양천
김광원	*납4년03월17일	부산 연제	김형호	*납4년04월13일	전북 순창
김귀성	*납4년03월17일	전남 해남	김천환	*납4년04월14일	대구 북구
김세환	*납4년03월17일	충남 보령	김길욱	*납4년04월16일	서울 성북
김용연	*납4년03월17일	서울 성북	김상심	*납4년04월19일	경기 고양
김재석	*납4년03월17일	경기 수원	김창호	*납4년04월20일	인천 남구
김정길	*납4년03월17일	경기 이천	김윤배	*납4년04월22일	전남 해남
김정희	*납4년03월17일	서울 동대문	김창수	*납4년04월23일	서울 중랑
김학연	*납4년03월17일	강원 철원	김영이	*납4년04월26일	부산 사상
김영환	*납4년03월18일	경남 합천	김명환	*납4년04월27일	서울 광진
김중근	*납4년03월18일	서울 성북	김진환	*납4년04월27일	전북 익산
김해동	*납4년03월18일	서울 관악	김동철	*납4년04월28일	경기 용인
김인식	*납4년03월19일	경기 용인	김영희	*납4년04월28일	충북 청주
김중근	*납4년03월19일	부산 해운대	김종문	*납4년04월23일	전남 해남
김동호	*납4년03월22일	서울 송파	김완정	*납4년05월10일	부산 남구
김시연	*납4년03월22일	경북 문경	김철우	*납4년04월12일	경북 안동
김영렬	*납4년03월22일	경기 이천	김홍연	*납4년05월14일	경기 성남
김용석	*납4년03월22일	경북 의성	김기수	*납4년05월24일	경기 남양주
김종익	*납4년03월22일	전북 임실	김성일	*납4년05월04일	경기 군포
김중근	*납4년03월22일	전남 해남	김영섭	*납4년05월06일	서울 은평
김충환	*납4년03월22일	서울 중랑			
김기준	*납4년03월23일	전북 진안			
김동철	*납4년03월23일	서울 관악			
김동필	*납4년03월23일	서울 서초			
김동현	*납4년03월23일	경기 시흥			
김병수	*납4년03월23일	전남 구례			
김영수	*납4년03월23일	전남 여천			
김이병	*납4년03월23일	경기 고양			
김형춘	*납4년03월23일	충남 논산			
김옥계	*납4년03월24일	경남 하동			
김상욱	*납4년03월25일	경북 영주			
김인재	*납4년03월25일	서울 노원			
김재동	*납4년03월25일	경기 용인			
김천은	*납4년03월25일	서울 강남			
김관홍	*납4년03월26일	충남 금산			
김성근	*납4년03월26일	서울 강서			
김양락	*납4년03월26일	울산 남구			
김영학	*납4년03월26일	경기 용인			
김상하	*납4년03월29일	경기 평택			
김서연	*납4년03월29일	서울 중랑			
김영운	*납4년03월29일	전남 해남			

무명인

*납4년02월23일	봉화농협/농협
*납4년02월24일	용일신갈/신한
*납4년03월09일	반월본오/농협
*납4년03월10일	임동농협/농협(김호현)
*납4년03월12일	부산덕포/우체국(김기모)
*납4년03월19일	구성/외환
*납4년03월19일	벽제관산/농협
*납4년03월24일	종로5가/우체국
*납4년03월26일	송학/농협
*납4년03월29일	하빈동곡/농협
*납4년03월29일	미금도농/농협
*납4년03월30일	남제천/농협
*납4년03월31일	서인천율도/농협
*납4년03월31일	동두천/농협
*납4년03월31일	역전/전북
*납4년03월02일	원주단주/농협
*납4년04월27일	하나/고덕역
*납4년04월30일	새마을/의왕

• 춘향대제 (春享大祭) 향료대(香料代)를 낸 종친 •

김명환	20,000	김상용	30,000	김승연	30,000	횡성(경북구미옥계문중)	100,000
김상석	50,000	김용희	30,000	김병준	30,000	김행엽	50,000
김동주	50,000	김학원	30,000	김문원	30,000	김승엽	100,000
김원재	30,000	김영배	20,000	김윤복	30,000	김중엽	50,000
김동연	30,000	보령종친회	100,000	김도연	50,000	김정일	100,000
김이승	50,000	부산종친회	50,000	어사공파(계곡종친회)	100,000	김종희(열린우리당)	100,000
김병조	50,000	김우영	30,000	김주현	30,000	안동종친회	200,000
김창연	50,000	어사공환산문중	100,000	김상준	50,000	영남종친회	100,000
김중현	20,000	김봉희	20,000	김진옥	30,000	김동균(삼림양산)	100,000
김노순	50,000	김영운	20,000	김기홍	20,000	무명인	20,000
김승연	30,000	김상득	50,000	김태현	30,000	무명인	50,000
김경남	50,000	김무원	20,000	절재공파담양종중	100,000	무명인	50,000
김명재	20,000	김철성	100,000	횡성공파파산산문중(수용)			
김영희	30,000	김상윤	100,000		300,000	합 계	3,220,000원
김춘희	20,000	김성복	20,000	대전충남종친회	100,000		

종친외비를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 회장

김철준	*납4년03월09일	서울 영등포
김정일	*납4년03월18일	광주 서
김동균	*납4년04월24일	대구 동

고 문

김창연	*납4년03월17일	서울 강남
김동걸	*납4년03월19일	경북 안동
김달현	*납4년03월23일	서울 강남

운영위원

김동수	*납4년03월15일	전남 순천
-----	------------	-------

이 사

김동규	*납4년02월23일	서울 강서
김상우	*납4년03월12일	서울 관악
김화중	*납4년03월15일	경기 수원
김동준	*납4년03월22일	충남 천안
김연희	*납4년03월25일	경기 안양
김재득	*납4년03월29일	경북 안동
김상석	*납4년04월23일	경기 광주
김동준	*납4년04월24일	전북 임실

회 원

김해수	*납4년03월08일	부산 남구
김상울	*납4년03월11일	서울 강동
김순원	*납4년03월15일	경기 군포
김기석	*납4년03월24일	충북 청주
김동철	*납3년12월29일	충북 충주
김한경	*납4년03월10일	전남 해남
김윤영	*납3년12월31일	인천 동구
김영관	*납3년12월30일	충북 괴산
김영환	*납4년01월05일	서울 강북
김정학	*납3년12월29일	부산 부산진
김승걸	*납4년02월02일	경북 안동
김이균	*납4년02월02일	서울 서초
김치연	*납4년02월02일	경북 안동
김해용	*납4년02월02일	대전 서구

김상균	*납4년02월04일	경기 양평
김병진	*납4년02월05일	서울 은평
김정웅	*납4년02월05일	전북 익산
김봉래	*납4년02월06일	강원 정선
김승연	*납4년02월10일	경북 의성
김종해	*납4년02월10일	경북 경주
김흥배	*납4년02월10일	인천 남구
김문환	*납4년02월11일	서울 서대문
김안석	*납4년02월12일	전남 해남
김연복	*납4년02월16일	서울 광진
김정일	*납4년02월18일	경기 남양주
김준원	*납4년02월19일	광주 서구
김승생	*납4년02월25일	전남 해남
김동익	*납4년02월27일	충북 충주
김동철	*납4년03월02일	서울 종로
김동호	*납4년03월04일	충북 보은
김원모	*납4년03월04일	강원 정선
김태희	*납4년03월04일	전남 순천
김동기	*납4년03월05일	서울 동대문
김동면	*납4년03월05일	전남 해남
김경진	*납4년03월08일	전북 군산
김귀영	*납4년03월08일	전북 전주
김사연	*납4년03월08일	충북 영동
김상일	*납4년03월08일	경기 고양
김순희	*납4년03월08일	강원 철원
김웅열	*납4년03월08일	서울 성동
김익수	*납4년03월08일	서울 성북
김중덕	*납4년03월08일	전남 해남
김창길	*납4년03월08일	전북 부안
김태선	*납4년03월08일	경남 마산
김광연	*납4년03월09일	서울 영등포
김동한	*납4년03월09일	전북 임실
김만조	*납4년03월09일	대구 서구
김상기	*납4년03월09일	충남 서천
김성배	*납4년03월09일	경기 수원시
김승남	*납4년03월09일	충남 보령
김유동	*납4년03월09일	부산 남구
김종영	*납4년03월09일	강원 인제
김중돈	*납4년03월09일	경기 시흥
김덕남	*납4년03월10일	경기 김포
김봉각	*납4년03월10일	경기 용인
김익희	*납4년03월10일	경기 의정부
김정남	*납4년03월10일	서울 서초



집은 행복의 무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뽐애진 욕실 거울에
'손가락 하트' 하나 그려 넣으면,
무심코 들어 선 아내가
마음 찡하게 행복해 한다는 걸...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곳 남김없이 행복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거실은 물론 주방에서 욕실, 발코니까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한화종합화학이 '행복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족 '행복의 무대' 한화종합화학이 만듭니다

- ▶ **장호 사업** 다양한 디자인과 앞서가는 기능으로 인테리어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상재 사업** 비덕장식재의 대표주자로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고객의 감각과 감성을 지켜드립니다
- ▶ **장식재사업** 우수한 품질의 마감재와 인테리어용 인조대리석 등이 생활의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 ▶ **부품 사업** 자동차 내장재에서 산업자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

